

성명서

현대자동차의 기업윤리는 ‘그때, 그때 달라요’

- 하이브리드 신차 광고 즉각 중단하고, 전국 축산농민 앞에 사죄하라! -

우리 축산농민들은 최근 TV브라운관에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상업광고를 목격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발상자체가 가히 충격적이다.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신차 광고에서 친환경차량임을 강조하기 위해 젓소의 하루 탄소배출량과 자동차의 1km당 배출량을 단순 비교하는 수치놀음으로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대해 전국 축산농민들이 비분강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광고를 제작한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며, 기업윤리나 핵심가치의 실종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냐면 FTA의 최대수혜자인 현대자동차가 최대피해자인 축산, 낙농농민들을 볼모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 사료값 폭등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낙농가, 축산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위한 개체가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존립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한 몰염치의 극치다. 현대차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착한기업’을 실천하기는커녕 금번 광고를 통해 ‘못된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려는지 우리 축산농민들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국가시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종과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치산업으로 선회한지 오래다. 현대차는 근본적인 사실 인식도 없이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왜곡시켜 우스갯거리 소재로 활용한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 관련 광고를 일체 중단하고, 전국 일간지·축산전문지에 사과문을 즉시 게재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축산농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 6. 9

축산관련단체협의회

